

# 장애인복지 1등, 이지콜이 앞당긴다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고객설명회 개최

장애인권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이지콜이 전주를 장애인복지 1등 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시는 전주시설관리공단은 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 1등 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시와 전주시설관리공단은 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 1등 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배차 △관제시스템을 통한 공차시간 감소 등을 추진, 지난해보다 배차효율을 크게(48%) 높이는 등 서비스 혁신을 이뤄냈다.

시는 그간 법정대수인 34대만 채워 운영해온 콜택시를 지난해 8대가 증차된 총 42대를 운영하고 3대의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다.

△운전원 실명카드 점자 제작·부착 △인터넷 및 모바일 앱 예약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 편의와 이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전주시설관리공단은 8일 평화도서관 강당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고객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차 공급 등 연차적 집행 계획 등을 소개했다. 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등으로부터 개선방안도 청취했다.

시는 내년도 이지콜버스 실시간 도착정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된 저상버스 1대를 교체하는 등 이지콜 서비스 운영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전주시 홍보대사 라스트포원이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말레이시아에서 한국문화를 알리는 '2016 말레이시아 한국 축제(2016 Korea Festival in Malaysia)'에 참여해 한국과 전주를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이번 2016 말레이시아 한국 축제에서는 비보이그룹 라스트포원이 초대대 이틀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국립 종합대학교, 말라야대학교(University of Malaya)에서 비보잉 공연을 진행했다.

## 전주시 홍보대사 라스트포원 '말레이시아 한국 축제'서 매력 발산

전주시 홍보대사 라스트포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주말말레이시아대사관과 함께 지난 7일~8일까지 이틀간 말레이시아에서 한국문화를 알리는 '2016 말레이시아 한국 축제(2016 Korea Festival in Malaysia)'에 참여해 한국과 전주를 알렸다.

공공외교 전문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 주말말레이시아대사관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공공외교 대상국 또는 지역에 한국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행사로 말레이시아에 한국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됐다.

축제에서는 비보이그룹 라스트포원과 여성타악그룹 도도가 초대대 이틀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국립 종합대학교, 말라야대학교(University of Malaya)에서 비보잉 공연을 진행했다.

공연은 라스트포원과 도도가 'Soul Beat'라는 주제 아래 한국의 비보잉과 퓨전타악을 조화롭게 공연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라스트포원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부하라 등 3

개 도시에서 '2016 우즈베키스탄 한국 축제(2016 Korea Festival in Uzbekistan)'에 참여해 한국문화를 알리고 전주를 홍보하는 활동을 가졌다. 이곳에서 전주를 알리는 홍보영상을 촬영하고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공연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전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라스트포원은 전주시 축제 및 홍보영상 등에 출연해 전주를 알리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외 대표적인 비보이그룹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택시 내에 두고 내린 지갑 훔친 20대 검거

전주완산경찰서는 7일 택시 이전 탑승자가 두고 내린 지갑을 절취한 권모씨(20, 남)를 절도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10월 12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모텔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이전 탑승자였던 피해자 A씨(25, 여)가 흘리고 간 지갑과 안에 있던 현금 5만1천, 신용카드 2장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지인 중학생 딸 성폭행 시도 40대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지인의 중학생 딸을 성폭행하려던 파렴치한 40대 마약사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49)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 선고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한씨는 2014년 여름 경기 시흥의 오이도 주택에서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던 고자 자신의 집을 찾은 지인의 딸 A양(14)을 성폭행하려다 A양의 완강한 거부로 이기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한씨는 지난해 6월 인천 부평구 동안역 부근에서 B씨에게 50만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8g을 팔고, 같은 해 7월 고양시 일산구 대화역 부근에서 B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필로폰 2g을 판 혐의도 받고 있다.

### 전주보건소, 11일 '소방공무원 건강 CAFE' 운영

전주보건소(김경숙 소장)는 7일과 8일, 오는 11일 등 총 3일에 걸쳐 전주덕진소방서 3층 강당에서 '소방공무원 건강 카페(CAFE)'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직장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취약인구 대상 사업으로 전주보건소와 대한안마사협회, 전북녹연지원센터, 전주시 건강동행센터,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

원센터, 전주체력인증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날 건강 카페에서는 △흡연과 음주, 만성질환, 구강건강 등의 건강 상담 프로그램, △동맥경화검사, 체력측정 등 검진 및 측정 프로그램 △전신 및 부분 안마 프로그램 △다과와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 등을 운영한다.

### 전주시 IT기업 해외시장개척 '결실'

#### 고스틴, 申허난항공과 협약 3년간 300만불 투자 유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한·중 3D 프린팅 및 드론 산업박람회를 통해 ㈜고스틴과 중국의 허난항공유한공사(이하 허난항공)가 연구기지 및 생산시설 설립과 3년간 총 300만불 투자 유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국 '허난항공'은 농업용방제드론 생산을 위한 연구기지 설립과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미화 100만불씩 총 300만불의 협금을 투자한다.

또 '고스틴'은 농업용방제드론의 판매 유통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연간 100대의 농업용방제드론을 유통

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진흥원 기업지원단과 ㈜고스틴(대표 오승진) 관계자는 지난 10월 중국 현지 방문 사업지원에 대한 협약 내용을 조율하고 양사가 합의한 농업용방제드론의 연구기지 설립 및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진흥원은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한·중 ICT산업 교류회 및 비즈니스상담회 등 대(對) 중국 관련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올해도 지역 IT기업 7개사가 중국 현지에서 비즈니스상담회를 통해 중국 진출을 원하는 기업 대상 자작권 세미나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 전주시, 부실시공 '삼진아웃'

#### 3차 적발시 영업정지·퇴출 등 강력 제재

전주시가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부실시공 업체와 공사에 참여한 기술자 모두를 퇴출키로 했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1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의 견찰한 시공을 위해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해 부실시공을 전면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공상태가 설계도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공상태가 전면적으로 조잡하고 불량한 경우 △불량 재재를 사용한 경우 등 1차 부실시공 적발 시 종전 불량부분만 재시공하던 방식에서 불량구간 전 구간을 재시공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시공이 반복될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자에 대한 강력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주의' 조치를 내리고, 2차 적발시에는 부실발정 및 입찰참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3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등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이 엄격히 적용된다.

건설공사에 참여한 기술자에 대해서도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퇴출 등의 방식으로 관련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지침을 마련해 부실시공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3차 적발로 퇴출 및 교체되는 건설업체와 참여기술자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이내 전주시 발주 모든 건설공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는 공사 관련 공무원과 감리자에 대해서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수시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단계별(기획, 실시단계, 시공,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는 정밀시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